

화순 고인들로 알아본 삶의 애환·역사와곡 문제

박기복 감독이 말하는 '광주영화'

화순 학생들과 방과 후 활동으로 '고인들' 제작 전일빌딩서 시사회 '낙화잔향 이후 오월 3부작 준비 광주영화 '정체성' 생겨야 성장'



박기복 감독이 지난 2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영화 '고인들' 시사회에 앞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광주영화가 많아져야 오월 영화의 작품성도 성장할 수 있겠죠."

전국 최초 스토리펀딩으로 만들어진 오월영화 '님을위한행진곡'을 진두지휘한 박기복 감독의 광주 영화에 대한 평가다.

지난 2일 옛 전남도청이 내려다보이는 전일빌딩245 8층에서 만난 박 감독은 광주영화에 대해 "예향 광주라는 개념이 '미술'이나 '소설'로 한정되는 것이 아쉽다"며 "5·18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는 많다. 광주에 의한 투자지원이 먼저다"고 말했다.

한 '시나리오 작업' 강의를 계기로 실제 영화를 만든 것. 바로 화순 고인들을 통해 선사시대의 슬픈 러브스토리를 그린 영화 '고인들'이다.

고등학생 20여명이 영화 전 제작과정에 참여했다. 코로나 감염, 태풍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1년간의 제작과정을 거쳐 지난 3일 전일빌딩245에서 시사회를 개최했다. 배우 김장준, 박누리를 비롯해 화순고 2학년 학생 강윤주 양이 주연을 맡았다.

영화 '고인들'은 지식강을 경계로 대립하는 태양 부족과 달 부족에 관한 이야기다. 태양 부족장의 딸과 달 부족장의 아들은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그 흔적은 오늘날 화순 고인들로 남아 삶의 순환적 의미를 내포한다.

박 감독은 "고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이다. 이를 통해 역사시대로 구분되는 단군왕검 이전인 선사시대에도 유구한 한반도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자 했다"며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삶의 순환적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현장에서 영화가 고인들 역사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주로 화순 도곡면과 춘양면에서 촬영됐으며 바닷가 장면은 무안 흥동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화순 출신 한보리 작곡가와 '님을위한행진곡'의 실제 연주자로 유명한 오영목 등이 주제가 제작에도 참여했다. 박 감독은 최종 편집, 영문 번역 등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영화 고인들을 국내청소년영화제, 음악영화제, 해외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박기복 감독은 전남일보와의 오랜 인연도 공개했다.

박 감독은 "1991년 희곡 '추억에 산 그림자'로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며 "1992년 시로 5·18문학상에 당선되기도 했다. 점점 광주와 5·18로 할 말이 많아지면서 작품세계가 영화로까지 이어졌다. 광주에서 영화를 고집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3학년 때 5·18 참상을 목격했다. 내 과거의 기억을 영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로 구현할 것인가, 가장 큰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5·18민중항쟁 43주년인 올해 박 감독은 세 번째 오월영화 제작에 시동을 건다. 바로 '복수'를 매개로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이다.

영화는 '임을위한행진곡', '낙화잔향'에 이어 세 번째로 광주를 다룬다. 중편영화로 광주관 안네의 일기인 '매장화첩' 기획하고 있다.

박 감독은 "오월영화가 한 분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광주에서 제작되고 투자가 이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작을 앞두고 있는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이 오월영화 3부작 마지막 작품이 될지, 오월영화 세번째 작품이 될지, 고민은 많다. 그래도 누군가는 광주영화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나에게 광주영화는 책임감이 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사진 속에 그려진 가상과 현실의 경계선

함평군립미술관 사진전 진행 4월16일까지 '판타지아' 관람

가상과 현실의 경계선에서 사진을 통해 끝없이 질문하는 전시가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군립미술관은 올해 첫 기획전으로 오는 4월16일까지 사진전 '판타지아-가상과 현실'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에는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사진가 구성연, 이정록, 임안나, 한성필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추후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 작업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작품을 통해 인간의 어긋난 욕망, 전쟁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풍자하거나 생명의 근원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또 현실의 풍경에 이미지를 더하거나 연출된 장면을 통해 가상의 세계를

구현했다.

먼저 임안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다. 전쟁의 풍경을 동화적인 비유로 제작해 상처로부터 인류를 치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구성연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바탕으로 재현한 화려한 모란꽃을 통해 현대인의 욕망을 이야기한다. 사랑 꽃의 황홀한 순간의 소멸은 세속적 욕망이 주는 허상을 보여준다.

이정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길 '산티아고' 연작을 보여준다. 순례길을 수놓은 수많은 빛의 흔적을 통해 역사 속의 생명체와 자연의 숭고함을 느끼게 한다.

한성필은 건물 공사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을 소

재로 작업한다. 가림막에 실물 크기의 건물 사진을 부착해 가상과 현실의 본질에 대해 질문한다.

전시회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관이다. 관람 요금은 무료다.

함평=신재현 기자



일본 강제동원 피해 다룬 '봉선화' 광주 무대 올린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류 협약 나고야 소송지원회·시민모임 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돼 강제노역을 당했던 근로정신대의 피해를 다룬 일본 연극 '봉선화'가 빠르면 올해 안에 광주에서 공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9일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 이국연)과 문화예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나고야 시민단체들이 직접 만들고 출연해 일본 전역에서 큰 호응을 얻은 기획연극 '봉선화'를 광주에서 공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극 봉선화는 2002년 나고야에서 처음 공연된 이후 지난해 '봉선화 2'가 공연됐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광주에서 '봉선화 3'가 공연될 예정이다. 지난해 나고야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9일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연극 '봉선화' 관련 협약을 맺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에서 열린 공연은 온라인 관객까지 총 900명이 관람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연극 '봉선화'를 무대에 올린 일본 시민운동단

체와 예술인들의 노력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면서 "협약을 계기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길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어린이 참여형 예술교육

특화 교육 20일부터 신청 전시 연계 교육 상시 운영

전남도립미술관은 '어린이 특화 교육'과 '전시 연계 교육'을 운영해 미술관의 참여형 예술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전남도립미술관 2층에 있는 어린이 아틀리에에서 '어린이 특화 교육'을 오는 26일부터 5월21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운영한다. '어린이 특화 교육'은 해외 예술가들의 책을 감상하면서 조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교육 활동이다.

교육은 오후 2시 6~7세 반과 오후 3시 8~10세 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활용해 선착순 180명까지 가능하다.

미술관 지하 1층에 있는 어린이 아틀리에에서는 '전시 연계 교육'이 진행된다. 도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여러 전시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술관에 방문한 관람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한다.

내용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사진) △전시 연계 활동지 교육 두



가지로 구성됐다. '디지털 교육'은 태블릿 PC로 작품 미션을 수행하면 실시간으로 화면에 반영되는 실감형 체험교육이다. '전시 연계 활동지'는 비치된 안내 자료에 따라 스스로 그림을 완성하는 교육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학예연구팀(061-760-3225)으로 문의.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우리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참신한 예술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생산하는 참여형 교육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언어적·정서적 능력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관람객의 다양한 수요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육 및 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미술관 G.MAP, 레지던시 입주자 모집

17일까지 접수... 4명 선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은 미디어아트 전문 창·제작자와 연구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MAP 미디어아트 창·제작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미디어아트 분야 창작자와 연구자를 육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레지던시 선발인원은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관련 창·제작자 1명, 연구자 1명, 타 지역 미디어아트 관련 창·제작자 2명으로 총 4명이다. 분야는 비디오, 사운드, 키네틱 아트 등 전 장르 융복합 미디어아트에 한정한다. 레지던시 입주기간은 오는 4월

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이다.

신청자격은 만 39세 미만으로 광주 미디어아트 관련 창·제작자 및 연구자(각 1명)는 광주지역에서 출생하거나, 소재 학교를 졸업 또는 공고일 기준 거주지나 작업실이 해당 소재지인 지원자로 제한된다. 타 지역 창·제작자(2명)에게는 레지던시 입주기간 동안 숙박시설이 제공된다.

접수는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7일까지 온라인(gmap@korea.kr)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27일 최종 입주자들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